홍명보號 '죽음의 C조'

U-20 월드컵 조편성 최악…미국·독일·카메룬과 경쟁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200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대회 '죽음의 조'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한국은 6일(한국시간) 새벽 이집트 룩소르 신전에서 열린 2009 이집트 U-20 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 독일, 미국, 카메룬 등과 함께 C조에 편성됐다.

이로써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유럽예선 우승팀인 독일을 비롯해 북중미 예선 준우승팀 미국, 아프리카 전통강호 카메룬과 더불어 험난한 16강 진출 싸움을 펼치게 됐다.

한국은 지난 1983년 멕시코 U-20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루고 나서 1991년 대회에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해 8강에 올랐고, 박성화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2003년 대회 때 16강에 진출했던 게 역대 최고 성적이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2005년 네덜란드 대회와 2007년 캐나다 대회에서는 모두 본선 조별리그 탈락에 그쳤던 만큼 홍명보 감독으로선 6년 만에 16강 이상 성적을 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유럽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독일과 북중미 예선 결승에서 1.5군을 투입해 준우승을 차지한 미국 등과 같은 조에 묶인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C조에 속한 상대팀들과 상대전적에서 한국은 우선 미국과 세 차례나 만나 2무1패로 다소 뒤지고 있다. 1993년 남북단일팀으로 나선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미국과 2-2로 비겼고, 2003년 대회에서 두 번째로 만나 0-2로 완패했다. 2007년 대회 때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친 한국과 미국은 1-1로 비겼다.

반면 한국은 2003년 대회 때 조별리그 1차전에서 이호진과 김종민의 연속골로 독일을 2-0으로 물리친 적이 있다. 또 아프리카의 카메룬은 아직 U-20 월드컵에서 맞붙은 적이 없지만 A대표 간에는 네 번 싸워 2승2무로 앞서고 있다.

한편 아시아를 대표해 함께 본선에 오른 호주는 역대 4차례나 우승했던 브라질, 2007년 대회 준우승팀 체코, 북중미의 코스타리카와 E조에 속해 한국만큼이나 힘든 싸움을 펼치게 됐고, 개최국 이집트는 파라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이탈리아와 함께 A조에 속했다.

2009 U-20 월드컵 본선은 9월24일부터 10월16일까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카이로, 이스마일리아, 수에즈, 포트사이드 등 5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된다.

"약팀이 어디 있나! 우리도 강팀이다"

조 편성 마친 홍명보 감독

"우리 조에 어느 팀이 걸리기를 기대하지 하지 않았다. 20세 이하 월드컵에 나올 정도면 어떤 상대도 약한 팀이 없다. 우리 팀도 강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홍명보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 감독은 6일(한국시간) 이집트 룩소르에서 열린 200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본선 조 추첨 행사에 참가하고 나서 '죽음의 조' 편성에 다소 당황해 하면서도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한국은 유럽 예선을 1위로 통과한 독일과 올해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한 미국, 아프리카의 '복병' 카메룬과 같은 C조에 편성돼 16강 진출에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이달 초 참가했던 이집트 3개국 초청대회 우승 때 4-1로 완파했던 개최국 이집트나 2-2 무승부를 기록했던 체코 등이 왔다면 나쁘지 않았겠지만 조 편성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는 "우리 조에 강한 팀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다. 하지만 어떤 팀이 오기를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다. 월드컵에 나오는 팀은 어느 나라도 쉬운 곳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강팀이 되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같은 C조 상대팀에 대해선 "독일은 유럽 챔피언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없는 강팀이다. 미국은 서정원 기술분석관이 북중미 선수권대회 때 준결승과 결승 경기를 봤는데 전력이 상당히 안정됐다고 한다. 또 카메룬은 굉장히 스피드가 좋고 체력을 앞세운 팀"이라고 설명하고 나서 "예선전 비디오를 입수하는 등 상대팀 정보 수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현지에서 열릴 코칭스태프 워크숍에 참석하고 월드컵 경기장을 둘러보고 나서 9일 귀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北 문제 제기는 정치적 주장…대응 안해"

축구협, 北축구협 성명 일축

북한축구협회가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남북대결에서 북한 선수들의 배탈과 정대세 헤딩슛의 '노 골' 처리 등을 놓고 거듭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대응할 필요가 없는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축구협회는 5일 대변인 성명에서 이번 일을 "반공화국(반북) 대결 책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조선당국이 이번 비상사건을 발생시킨 데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즉시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축구연맹(FIFA)이 경기 전 과정을 검토하고 적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성명 자체가 스포츠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색깔이 짙다. 우리로서는 대응할 것이 못 된다"고 일축했다.

스포츠중계

7일(화)

▲2009 프로야구〈두산 : 한화〉(18 : 15·Xports) 〈롯데 : LG〉(18 : 20·MBC ESPN) 〈히어로즈 : 삼성〉(21 : 00·KBS n스포츠)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2차전〈현대캐피탈 : 삼성화재〉(18 : 40·KBS n스포츠)

8일(수)

▲2009 프로야구〈히어로즈 : 삼성〉(18 : 10·KBS n스포츠) 〈롯데 : LG〉(18 : 20·MBC ESPN) 〈두산베어스 : 한화〉(18 : 30·Xports) 〈SK : KIA〉(21 : 00·SBS스포츠)

6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애스턴 빌라와의 2008-200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경기에서 애스턴 골키퍼 브래드 프리델이 맨유 카를로스 테베즈를 향한 볼을 잡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맨유, 애스턴 꺾고 선두 복귀…박지성 결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후반 인저리 타임에 터진 '18세 신예' 페데리코 마체다의 역전 결승골을 앞세워 정규리그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5차전 북한전을 마치고 맨유에 복귀한 박지성(28)은 교체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자전거 타고 함께 달려요" 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배우 최여진(왼쪽부터), 김주훈 국민진흥체육공단 이사장, 배우 안재모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상욱 셀휴스턴 공동 19위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셀휴스턴오픈에서 공동 19위에 올랐다.

나상욱은 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험블의 레드스톤 골프장 토너먼트 코스(파72.7천45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트리플보기 1개, 보기 1개로 이븐파를 쳐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를 기록했다.

공동 6위 그룹에 3타 뒤져 톱10 진입은 실패했지만 올해 출전한 9개 대회 가운데 컷 탈락한 2개 대회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25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은 버디 3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2타를 잃어 최종합계 4언더파 284타로 공동 26위로 대회를 마쳤다.

강지민 8위, 신지애 21위

LPGA 나비스코 챔피언십

5년 만에 '호수의 여인'을 탄생시키려던 한국 자매들의 꿈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선수들은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의 미션힐스 골프장(파72.6천673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선두 추격에 나섰지만 강지민(29)만이 공동 8위(2언더파 286타)에 올라 톱10에 들었다.

2005년 5월 코닝클래식에서 투어 첫 우승을 차지한 뒤 우승컵이 없었던 강지민은 4타차 공동 4위로 4라운드를 맞았지만 뒷심이 부족했다.

강지민은 10번홀까지 1타를 줄이며 우승을 넘봤지만 15번홀(파4)에서 17번홀(파3)까지 3개홀 연속 보기를 적어내면서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신지애(21·미래에셋)는 1타를 줄이는데 그쳐 김송희(21)와 함께 공동 21위(2오버파 290타)에 올랐다.

에릭슨오픈테니스 머레이 우승

앤디 머레이(4위·영국)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소니 에릭슨오픈 단식 정상에 올랐다.

머레이는 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노박 조코비치(3위·세르비아)를 2-0(6-2 7-5)으로 꺾고 우승 상금 60만5천500달러를 차지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내리 네 게임을 따내 기선을 잡은 머레이는 2세트에서는 반대로 게임스코어 1-4까지 뒤지다 전세를 뒤집었다.

올 시즌 투어에서 맨 처음 3승 고지에 오른 머레이는 26승2패의 강세를 이어갔다. 준결승에서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를 꺾으며 기세를 올린 조코비치는 실책을 43개나 쏟아내 19개로 막은 머레이의 벽에 막혔다.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 062) 225-1688
H.010-3565-2888
※ 위치 : 지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무료주차시설 완비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하실 분 및 재테크상담 대환영

아파트 (전세금액으로 내집마련)

지역	소재지	면적	층/층수	감정가	최저가
남구	진월동 아남아파트	32	19/1	1억400만	7840만
	봉선롯 금호타운	31	20/ 2	1억3500만	9450만
	진월동 대덕8차	25	18 / 1	5800만	4080만
	봉선동 라인하이츠	26	10/1	6400만	4480만
	봉선동 모아	22	10/2	5500만	3850만
	방림롯 금원	22	5/3	4000만	3200만
	주월롯 호반베르디움	48	15/13	2억7000만	1억8900만
	진월동 한국아델리움	37	22/20	2억4000만	1억9200만
	풍암동 모아	43	16/1	1억7000만	1억1900만
	금호롯 일신	32	16/16	9700만	6800만
	쌍촌동 부건빌고을	31	19/16	1억3500만	9450만
	내방동 주공	18	18/12	6500만	4550만
	치평롯 금호대우	24	20/18	8800만	6160만
	화정롯 금호3차	49	15/14	1억7000만	1억1900만
	쌍촌동 모아제일	32	20/1	1억2000만	7680만
	화정동 럭키엠주	27	10/1	6000만	4200만
	금호롯 중원엘리스	34	19/15	1억5500만	1억800만
	풍암롯 SK뷰	66	15/5	4억5000만	3억1500만
	금호롯 대주파크빌	25	21/12	9600만	6720만
	금호동 한국	27	8/7	8500만	5950만
북구	운암동 미라보	33	20/11	9000만	6300만
	일곡롯 쌍용	37	19/4	1억4000만	9800만
	연제롯 대주2차	31	15/3	1억8200만	1억2700만
	연제롯 현대	61	20/6	1억5500만	1억800만
	문흥동 대주	31	11/7	8500만	5950만
	문흥동 대주2차	24	15/8	5200만	3640만
	두암롯 현대아파트	57	18/4	2억1000만	1억4700만
	일곡롯 벽산	31	21/2	1억1500만	8000만
	동림동 푸른3단지	24	20/19	7000만	4900만
	우산동 현대	55	15/9	1억6000만	8960만
	운암롯 삼호	32	15/14	8000만	5600만
	용봉롯 아이파크	57	22/3	3억2000만	1억7900만
광산	운남롯 주공5단지	32	20/16	9500만	6650만
	월곡롯 금호타운	27	15/4	7500만	5250만
	월곡롯 금호타운	31	15/11	9000만	6300만
	송정롯 은세계아이	33	15/7	1억3200만	9200만
동구	학동 현대1차	59	15/9	2억7000만	2억1600만

주택 (내집마련/전원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곡성	입면 제월리(군촌마을)	106/35	6250만	3200만	농기주택
	목사동면 (면사무소부근)	126/86	1억3700만	6150만	2층벌집주택
영광	영광읍 (중앙초 옆)	100/25	6900만	3860만	단층주택
	영광읍 신하리(택지지구)	58/30	7160만	5000만	단층주택
나주	봉황면 철천리	108/24	2800만	1240만	농기주택
화순	도곡면 철곡리	62/20	1600만	1100만	농기주택
서구	화정롯 (서석고부근)	39/39	9700만	4400만	2층주택
남구	백운롯(백신아파트근)	42/23	1억200만	5700만	단층주택
	백운롯(서광여행부근)	45/42	88만	4900만	2층주택
	월산롯(농성초부근)	51/34	8400만	4700만	2층주택
	월산롯(농성초부근)	39/52	1억4800만	8600만	2층주택
	양림롯(양송국부근)	54/35	1억	4480만	단층주택
북구	신안롯(신안교부근)	69/40	1억1900만	5300만	단층주택
	우산롯(무등도서관)	48/42	1억300만	5700만	2층주택
	두암롯(홈플러스부근)	43/49	9850만	5400만	2층주택
	용봉롯(유창파크부근)	38/46	8780만	4900만	2층주택

상가주택/근린사설 (내집마련/전원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북구	두암동(문화초교부근)	45/51	1억1900만	6650만	2층상가주택
	용봉동(전대후문 편의점지하)	32/119	8억1000만	4억5300만	피자전문
	신안롯(KT부근)	80/97	3억8300만	1억7200만	3층상가
남구	백운동(백신아파트상가)	38/46	1억2600만	4500만	아파트상가
	지석동(대촌중초부근)	151/213	5억500만	2억2600만	2층(약국/병원)
	월산동(한빛병원부근)	124/37	10억8500만	4억8600만	5층(식당/목욕)
서구	내방롯(주공단지입구)	165/336	12억5000만	8억7500만	5층(식당/병원)
동구	계림동(구시청부근)	100/221	6억6300만	4억6400만	4층(상가원룸)

토지 (주말농장/전원주택부지/표자리/투자)

지역	소재지	용도	면적	감정가	최저가
북구	양산동 (양산지구주상권)	대지	152	4억9400만	3억4600만
	신용동 (GS자이부근)	논	156	1억3400만	9400만
광산구	동호동 (본촌마을부근)	임야	12000	1억2700만	5680만
영광	영광읍 (해룡고도로변)	대지	278	2억9500만	8500만
장성	남면 월정리	논	960	1억400만	7330만
	남면 분향리	밭	1112	1억6600만	1억1700만
	산서면 석마리	논	633	2900만	2000만
나주	반남면 성계리	논	817	2300만	1600만
	왕곡면 죽곡리	논	875	3200만	2230만
	왕곡면 행전리	논	1091	4000만	2780만
	다시면 가운리(관리지역)	논	1756	1억5600만	1억900만
	봉황면 경성리	밭	252	1600만	1100만
	세지면 대산리	논	1186	4310만	3000만
화순	한천면 정리	임야	6720	2200만	990만
	남면 내리	논	820	3500만	2500만
	춘양면 화송리	논	408	1200만	680만

숙박시설 (운영수익최상)

지역	소재지	면적	층수	감정가	최저가
북구	우산롯 (안보회관부근)	128/314	4	7억2000만	3억2200만
	중흥동 (광주역 부근)	120/403	6	13억	7억2700만
화순	북면(금호리조트부근)	1092/898	6	17억4500만	4억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별량초교근)	528/360	4	7억2300만	1억2100만

공장시설

지역	소재지	면적	층	감정가	최저가
두안	일로읍(일로농공단지)	1157/718	2	6억4100만	3억5900만
	삼향면(죽림저수지부근)	1619/785	단층	9억6100만	4억4000만
광양	광양읍 세풍리	1620/357	2	13억	4억6700만

[주]한국경매는 고객님의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 ☎(062)227-9600
• FAX:(062)227-9500

회춘
발기부전,조루,조림선 비대
현연(양기석) 부작용無 3일지속
큰놈(단뇨조루해결) 무료선물
20회분 66,000원
H·P 010-6218-1249

♥남성희소식♥
※ 미제정품(U.S.A)
1/2복용 72시간효과 조루,발기 100%효과
10정,20정,30정 한통 최저가 판매
문의전화 010-9147-8071

개업·성업 안내

동남익스프레스 대표 : 김쌍호 북구 두암동 두암초등학교 후문앞 일반이사,포장이사,사다리차,피아노운반,가종차량보유 전국이사점연결 T. 017-605-1234

동남익스프레스 청지기주야간보호센타 광산구 도산동 삼라마이더스@정문앞 노인장기요양복지센터,푸드뱅크,요양보호사교육원 회원수시모집 T. 941-2233

나라건업 대표 : 김칠석 광산구 도산동 송정서초등학교 정문앞 샷슈,스텐,조립식주택,주택,상가리모델링,철구조물,제작시공전문 T. 011-3605-0378

염주로또복권방 대표 : 김형수 서구 화정동 염주4거리근처 복권방 T. 010-2647-3439

괘남 대표 : 김양식 동구 충장로1가 광주은행 남부지점옆 한국맞춤양복 기술협회장 T. 222-8977

믿음종합장식 대표 : 정홍안 북구 중흥동 중흥초교후문앞 아파트,리모델링,페인트,싱크대,도배,장판,버티칼,데코타일 T. 267-0339

한라상조 대표 : 김희남 북구 우산동 부등장례식장앞 묘지,이장 및 조성 회원수시모집 T. 512-4331

KAL투어 동구 불로동 그랜드호텔건너 여행도 여행다움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T.234-1090